아동 노동 착취가 일어나는 대부분의 나라는 개발 도상국이다. 다른 나라의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고 공부할 때, 개발 도상국의 아이들은 농장이나 공장에서 노동을 하거나 앵버리에 동원되고 있다. 아이들 중에는 자신의 생계를 이어 가기 위해 일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부모에 의해 팔려온 아이들도 있다. 대부분은 개발 도상국의 어려운 상황이 아이들을 일하게 만드는 것이다. 처음에는 아이들 또한 각자의 사정으로 일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돈이 필요해서와 같은 아이들에게도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아이들의 생계권을 보장할 수 없다면 일을 하는 아이들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농장이나 공장에서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작업 환경을 제공할 생각이 없다.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쉬는 시간도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환경 때문에 다치거나 죽는 아이들도 있다. 공장은 단순히 값싼 노동력을 통해 생산가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싼 아이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유엔에서 정의한 아동 노동은 ‘아동의 교육, 신체적, 정신적, 영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해를 입히거나 방해하는 일’이다. 이에 따르면 아이들이 일하고 있는 환경은 명백한 노동 착취이다. 아이들은 아직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이므로 이러한 노동 착취는 없어져야 한다.